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산업보건 분야에서 양·한방의 협력을 바라며



한의학

분야에서 근로자의 건강증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더니 드디어 대한예방한의학회가 탄생되어 작년에 “산업보건과 한의학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중일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물론 한의학계에서 예방의학 분야에도 일찍이 관심을 보여 양생학(養生學)이라는 학문으로 일반적인 건강증진을 위해 애써온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학체계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독특하게 양방과 한방으로 나누어진 이원적 의료체계를 가지고 각각 발전해 왔기 때문에 서로가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실상은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러나 최근의 한의과대학이나 의과대학의 교육 과정을 보면 기초의학의 분야에서는 거의가 비슷하리만큼 가르치며 배우고 있다. 그래서 매스컴에 나오는 유명한 한의사 선생님은 질병의 발생기전을 설명하는데 양의학의 전문지식을 원용하기도 하고 근원적인 설명과 처방에는 한의학의 음양오행 이론으로 마무리하는 것 등을 종종 들을 수 있다.



이 용 호 교수

포천중문의대 보건복지대학원

최근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서양의학의 치료법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소위 암이나 관절염, 당뇨, 고혈압, 만성피로증후군 등의 생활습관병 및 만성질환의 경우 아시아의 각 국에서 사용되어온 전통의료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대체의학(Complementary Alternative Medicine: CAM)이라는 이름으로 국립연구센터(National Center of Complementary Alternative Medicine: NCCAM)가 확대 발족되어 많은 연구비를 쏟아 붓고 있으며 그 해결책을 찾으려 하고 있다. 이러한 대체의학 분야 중 하나가 침술(Acupuncture) 및 생약의학(Herbal Medicine)이며, 심신의학(Mind-body Medicine)과 에너지 요법(Energy Therapy), 그리고 동종요법(Homeopathy)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앞으로 10년 안에 많은 연구결과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그 치료법들의 근원이 동양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수입해야 할 형편에 놓일 것으로 사료된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동양의학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서양의학 이외의 모든 의학을 대체의학 또는 보완의학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치유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면 서양의학의 범주로 편입되는 경향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5,000년 전부터 동양의학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에서의 대체의학 분야에서 동양의학의 범주를 제외시킨 나머지 분야를 대체의학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산업보건의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증진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체계 안에서 장족의 발전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건강은 물론 삶의 질의 향상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근로자의 사고를 예방함에 있어서도 인간공학적인 연구결과를 토대로 산업보건 분야와의 협력으로 커다란 성과를 올린 것도 사실이다. 의료의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화 및 세계화의 물결 속에 산업보건의 걸어가야 할 방향은 이제 더 이상 양·한방이 서로 담을 쌓고 외면만 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행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열린 마음으로 작업환경이 열악한 속에서도 묵묵히 땀 흘리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이제부터라도 함께 대화하며 학문적으로 교류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다가가야 한다고 본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방법을 함께 공유하며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인 연구 노력을 함께 경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시작이 반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적기라는 역설적인 이야기가 있듯이 지금도 결코 늦지 않았다고 본다. 우선 학문하는 양·한방의 학자들끼리 만나고 문제점을 함께 공유하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양쪽의 지혜를 빌어 풀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정부는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양·한방이 협력체계가 아닌 경쟁관계에 놓일 때에 근로자의 건강증진은 오히려 뒷걸음칠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의(醫)는 원래 하나이다. 과학이라는 체계에서 동서로 나누어졌고 이로 인하여 의학도 동서로 나누어 나름대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고 치료하는 의학적 기술 및 방법은 동서양을 구분하지 않고 수없이 개발 및 소멸되어 왔는데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온 뒤에는 연구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현재 의료계에서도 의료의 일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근본적으로는 동의하는 분위기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 할지 양측에서 의견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때에 산업보건 분야에서 한방의학의 학자들이 근로자의 건강증진에 관심을 표명하고 공식적으로 활동을 전개함에는 환영하는 바이다. 작업의 현장에서는 성급하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서로 마음과 마음으로 머리를 맞대어 진지하게 대화하며 근로자의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는 협력 방향이 모색되어지기를 기대한다. **한방**